

오락가락 잔여백신 지침에 혼선 가중

60세 미만 예비명단서 제외

젊은층 반발에 9일까지 유예

일선 의료기관 항의 전화 시달려

일방적 지침 변경 의료계 불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잔여백신' 접종대상을 갑자기 하루 사이에 만 60세 이상 연령으로 제한했다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수차례 오락가락한 행정을 펼쳐 기특이나 바쁜 광주·전남지역 의료기관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접종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노려왔던 만 30세 이상 젊은층들이 "예고도 없이 이것까지 막느냐"며 반발하자, 방역당국에서 연령제한 적용시점을 4일에서 다시 9일로 조정하면서 애꿎은 일선 의료기관들이 문의 또는 항의 전화·방문 등에 시달리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추진단은 지난 2일 오전 브리핑에서 60세 미만 잔여백신 접종 지

침을 '4일부터 예비명단 이용 불가'로 발표했다가,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을 못 받았다'라고 4일부터는 명단서 삭제(오후 2시 10분)로 변경한 데 이어 '예비명단 기등록자는 9일까지 접종 가능'(밤 10시)으로 또 변경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지난 2일 '4일부터 예비명단서 삭제' 중간 지침 발표 소식을 접한 이후 예비명단에 있는 60세 미만 예약자에게 접종취소 통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9일까지 유예' 방침으로 번복되면서, 일부 의료기관은 3일 오전부터 접종 가능성을 묻는 전화는 물론 직접 방문부터 "접종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등의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

결국 질병청은 대변인 명의의 참고자료를 내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예약해 둔 사람에게 취소하게 하는 것도 불편하고 예약된 사람도 불편함이 있는 것을 고려해 9일까지 유예를 줬다"는 입장으로 지침을 변경한 방역당국의 행태를 성토했다. 결국 질병청은 대변인 명의의 참고자료를 내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예약해 둔 사람에게 취소하게 하는 것도 불편하고 예약된 사람도 불편함이 있는 것을 고려해 9일까지 유예를 줬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의료현장에선 사전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한 방역당국의 행태를 성토했다. 결국 질병청은 대변인 명의의 참고자료를 내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예약해 둔 사람에게 취소하게 하는 것도 불편하고 예약된 사람도 불편함이 있는 것을 고려해 9일까지 유예를 줬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의료현장에선 사전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한 방역당국의 행태를 성토했다. 결국 질병청은 대변인 명의의 참고자료를 내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이미 예약해 둔 사람에게 취소하게 하는 것도 불편하고 예약된 사람도 불편함이 있는 것을 고려해 9일까지 유예를 줬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의료현장에선 사전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한 방역당국의 행태를 성토했다.

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의료기관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잔여백신 예비명단을 활용할 수 없게 된 젊은층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방역당국의 갑작스런 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9일 이후 60세 미만의 의료기관 전화·방문 예약을 할 수 없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맵 앱을 통해서만 잔여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60세 이상 접종자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지훈(48)씨는 "손님을 많이 접하는 자영업 특성상 빠른 백신접종이 절실히 인근 병원에 잔여백신 등록을 해놨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40대는 사회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연령대 있는데, 현 추세라면 가장 늦게 백신을 접종받게 되는 세대가 된다. 자칫 코로나에 감염돼 가게 영업을 중단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면 60세 이상은 대부분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30세 이상의 경우 앱을 통해 예약을 해놓으면 조만간 순서에 따라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을 이틀 앞둔 3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3명·전남 2명...코로나 소강세 지속

광주·전남지역의 코로나19 소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특성상 유행인구가 많은 주말·휴일을 기점으로 재확산 가능성을 경계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산구 산업단지 내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2명(격리 중 확진)과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1명 등 3명이 신규 발생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822명으로 늘었다. 광산구의 제조업체에선 지난 2일 직원 1명이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확진 판

정을 받았으며 이어 직원, 가족 등 32명이 검사를 받아 동료 2명이 추가 확진됐다. 광주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CCTV와 GPS검사 등 심층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에선 지난달 31일 5명, 1일 5명, 2일 4명 등 최근 일일 한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 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가 일시 소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대시원 환기 캠페인 등 다양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독려하는 한편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2일 3명, 3일 오후 2시 현재 2명의 신규확진자가 나왔다. 2일 확진자는 광양과 함평, 무안에서 한 명씩 나왔다. 3일 나주와 목포에서 한 명씩 나온 신규 확진자는 모두 서울 강동구 1740번 접촉자로 조사됐다. 3일 새벽 0시 기준, 전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681명 나왔다. 감염경로는 지역 발생이 672명, 해외유입이 9명이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4만2157명이 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87명→533명→480명→430명→459명→677명→681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수 금오도·구례 지리산정원·무안 황토갯벌랜드 전남도 추천 코로나 블루 달랠 6월 여행지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웰니스(Wellness) 트렌드에 맞춰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6월 추천 여행지로 여수 금오도, 구례 지리산정원, 무안 황토갯벌랜드를 선정했다.

여수 남면에 있는 금오도는 돌산 신기항에서 약 25km 떨어진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이다. 비렁길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다. '비렁'은 여수지역 사투리로 '벼랑'을 의미한다. 금오도 비렁길은 총 5코스로 18.5km로 이뤄졌다. 아찔한 해안 절벽을 따라 쪽빛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빼어난 풍광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을 위한 섬 여행으로 손색이 없다.

금오도 주변에는 방죽포해수욕장, 향일암 등이 있어 푸른 바다와 하늘을 만끽하며 캠핑, 낚시체험이 가능하고 갈치요리가 유명하다.

구례 지리산정원은 풍부한 자연 식생이다. 지리산의 꽃과 나무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야생테마랜드, 자생식물원, 구례생태습지, 숲속수목욕, 산수유자연휴양림, 구례수목원이 조성됐다. 특히 자생식물원의 숲속휴랜드는 동화 속 주인공 조형물과 일목일곡한 어린이 체육시설이 마련돼 아이들과 함께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하기에 좋다. 넉넉한 휴식과 관광을 원한다면

주변에 있는 지리산치즈랜드, 향나무숲, 쌍산재 등이 제격이다.

세계 5개 갯벌 중 하나로 꼽히는 무안 갯벌은 갯벌 낙지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원시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갯벌도립공원 1호로 지정됐다. 바로 옆에 있는 무안 황토갯벌랜드에서는 숙박과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하다.

숙박시설로 무안 황토로 만든 황토이글루와 황토옴막, 캐러밴, 오토캠핑장 등이 있다.

갯벌생태관은 디지털 수족관, 디지털 아쿠아리움, 가상현실 해저체험 등 갯벌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 아이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야외에 조성된 갯벌공원에선 데크길을 따라 걷다보면 갯벌동물인 멸종위기 2급 흰발농게를 비롯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체험도구를 준비하면 갯벌 체험도 할 수 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에서 지친 심신을 달랠 여행의 즐거움과 힐링을 "도에서 여행객의 건강을 위해 관광지,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여행의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10개월 행안위 계류 여순사건 특별법 민평련, 국민의힘 법안 의결 참여 촉구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평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평련 소병훈 대표위원을 비롯해 설훈, 주철현, 윤미향, 양경숙, 허영, 신정훈, 조오섭, 진성준, 이규민, 김승남,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민평련 회원인 주철현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15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후 6월 초 현재 10개월이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

다. 발의 후 지난해 12월 행안위 입법공정회를 거쳤고, 지난 4월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심사 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가,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평련은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정을 보면,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장을 찾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국민 통합과 화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동부권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한을 간직한 채 73주년 위령제를 맞이하지 않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마지막까지 쟁기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지분 부동산 삽니다
(주)오천. 010-3605-5000

단독심 삽니다. 010-6837-47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합병공고

주식회사 유메이티(이하 "갑")와 주식회사 유메이티프렌즈(이하 "을"), 주식회사 유메이티(이하 "병")는 2021년 6월 2일 각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로 "갑"이 "을"과 "병"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을"과 "병"은 해산하기로 결의한다. "을" 및 "병"의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이하 "1개월 내")에 관세청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각 회사에 대하여 합병에 대하여 있는 채권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이하 "1개월 내")에 관세청에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4일

갑 상 호 주식회사 유메이티
본 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164 (도산동)
사내이사 임정택

을 상 호 주식회사 유메이티프렌즈
본 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436-68 (오선동)
대표이사 임정택

병 상 호 주식회사 유메이티스
본 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436-68 (오선동)
대표이사 조충현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1년 6월 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150,000,000원을 금 135,2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15,000주 중 보행주식 1,480주를 본 회사가 회향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403,041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이하 "1개월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1.06.04

주식회사 대진파이프
광주광역시 서구 영동 182-5, 182-6, 182-8번지
대표이사 백관인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중태(570115-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삼정로 7, 108동 804호 (두암동, 을곡택)안

피상속인 망 김중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원 2021-년당551호로 신청하여 2021년 5월 2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 및 승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마라하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에 제의됩니다.

2021년 6월 4일

· 상속인 : 김우일(850421-XXXXXX)
광주 광산구 철만내촌로70번길 88-22 (월계동)

· 신고기간 : 2021. 6. 4. ~ 2021. 8. 13.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우일의 주소

산행안내

6월13일(일)
▲광주Ki산악회 6월13일(일) 경남 남해&금산두메곶산

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누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i산악회 ☎ 010 7794 6920

69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